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Health Status, Health Hazards and Industrial Accidents of Workers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준해대학 간호과 / 안혜경
울산북구보건소 / 이병희

본 연구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편의표출 방법에 의거하여 울산 북구에 위치한 113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1,205명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연구자가 제작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도구로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자가 보고하게 한 후 직접회수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PC+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들 및 성별에 따른 변수들 간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서는 2-way ANOVA를 활용하였고, 2-way ANOVA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인 변수의 경우, Scheffe test를 통해 사

후 검정한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2007년 등록된 제조업체 329업체 중 대기업 3개 업체 303명, 중기업 25업체 470명, 소기업 85업체 403명으로 총 113개 업체의 총 1,2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자 근로자가 75%, 여자가 근로자가 25%였다. 연령 평균은 36.7세이였으며, 산업체별로 대기업 근로자 40.2세로 중기업 34.8세, 소기업 35.9세보다 평균연령이 많았다($p < .05$).
2. 대상자들의 현재 재직하는 산업체에서의 평균 근무 개월 수는 대기업 근로자 평균 154.5개월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중기업 근로자 평균 72.8개월, 소기업 근로자

평균 43.3개월이었다($p < .05$).

주당 근무시간은 대기업이 9.8시간으로 중기업 9.2시간, 소기업 9.2시간보다 많았고, 초과근무시간은 대기업 23.5시간이었고, 소기업 28.9시간으로 중기업 20.5시간보다 많았다($p < .05$).

근무조건은 대기업의 경우 전일근무 44.8%, 교대근무 55.2%, 중기업 전일근무 86.5%, 교대근무 13.5%, 소기업 전일근무 97%, 교대근무 3.0%이었다.

3.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로는 BMI 지수로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23.4, 중기업 근로자 22.9, 소기업 근로자 22.8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23.5, 여자근로자 21.2에 비해 높았다($P < .05$).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4점 척도로 대기업 평균 2.1, 중기업과 소기업은 2.0으로 산업체 구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이환율은 고혈압이 전체 대상자의 8.6%, 간질환 4.7%, 당뇨병 2.7% 순으로 나타났다.

4. 흡연 실태는 매일 흡연하는 근로자는 대기업 남자근로자가 50.5%, 중기업 남자 근로자 53.6%, 소기업 남자 근로자 56.8%이었고, 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1.8%에 불과하였다.

고위험 음주율은 대기업 남자 근로자의 48.1%, 여자근로자 6.7%, 중기업 남자

근로자 53.8%, 여자 근로자 25.5%, 소기업 남자 근로자 42.0%, 여자 근로자 27.0%로 나타났다.

5일 이상의 중등도 운동실천율은 대기업 근로자 14.6%, 중기업 근로자 11.4%, 소기업 근로자 10.9%로 나타났으며, 남녀 성별로는 전체 남자 근로자가 13.6%, 여자 근로자 7.4%이었다.

5. 건강장해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 현황으로는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기업 근로자 66.6%, 중기업 18.6%, 소기업 49.4%로 나타났으며, 먼지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대상자는 대기업 근로자 63.9%, 중기업 근로자 27.4%, 소기업 근로자 73.1%였다.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대기업 근로자 34.0%, 중기업 근로자 9.6%, 소기업 근로자 25.6%로 나타났다.

자신이 하는 일이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대기업 근로자 33.4%, 중기업 근로자 11.5%, 소기업 근로자 40.4%, 중노동을 하는 대상자는 대기업 근로자 28.6%, 중기업 근로자 1.5%, 소기업 근로자 17.9%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노출작업을 하는 대상자는 대기업 근로자 16.6%, 중기업 근로자 5.1%, 소기업 근로자 16.7%였고, 고열 혹은 한랭 작업을 하는 대상자는 대기업 근로자 5.1%, 중기업 근로자 1.5% 소기

업 근로자 7.7%로 나타났다.

6. 건강장해 혹은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요인관리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지정도에서 작업환경요인으로서 '작업장내의 기계 및 설비에 결함'은 대기업 근로자들 42.8%, 중기업 근로자들은 14.8%, 소기업 근로자들은 13.8%, '작업공간 불량'은 대기업 근로자의 43.7%, 중기업 근로자 14.9%, 소기업 근로자 14.8%가 그렇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작업장의 공기 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지' 하는 대상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68.7%, 중기업 근로자 27.7%, 소기업 근로자 27.8%이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직장단위에서의 관리 실태로서 직장 내에서의 '건강관리가 부족'은 대기업 근로자 33.4%, 중기업 근로자 19.4%, 소기업 근로자 19.1%이었다. 근로자 자신의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자가 관리 실태로서 '작업자세 불

량'은 대기업 근로자 40%, 중기업 근로자 27.2%, 소기업 근로자 22.6%로 나타났다. '보건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은 대기업 근로자 40.5%, 중기업 근로자 25.3%, 소기업 근로자 25.7%가 그렇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본 조사 대상 근로자들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의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38.5%이었고, 다음으로는 '근로자 스스로의 위험관리 및 건강관리'가 31.7%, '회사차원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및 건강관리'가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인 흡연, 음주, 운동 및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요인에 대한 실태를 토대로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 ☺